

## 만성 췌장염에서 주 췌관의 형태학적 변화와 췌장 외분비 기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고려의대 내과학교실, 소화기 연구소

김광희\*, 박철희, 박재홍, 이구, 이성준, 권오상, 진윤택, 전훈재, 이홍식, 송치욱, 엄순호, 이상우, 최재현, 김창덕, 류호상, 현진해

췌장 기능 검사는 만성 췌장염의 진단과 흡수장애 같은 췌장 기능 부전의 중증도 등을 판정하는데 주로 이용되며, 이중 십이지장액이나 췌액을 이용한 외분비 기능 검사는 대변 키모트립신이나 PABA 검사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만성 췌장염에서 췌관의 형태학적 변화와 췌장 외분비 기능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 조영술(ERP)과 췌장 외분비 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주 췌관의 형태학적 변화와 외분비 기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28예(만성 췌장염 환자 20예, 건강한 성인 8예)를 대상으로 주 췌관의 형태학적 변화는 Cambridge 분류를 이용하였으며 췌장 외분비 기능은 췌액을 수집하여 평가하였다. 만성 췌장염의 진단은 특징적인 임상적 증상과 복부 단순 X선 검사, 복부 초음파 또는 전산화 단층 촬영, 그리고 ERP를 시행하여 진단하였다. 췌액은 음식 후에 일반적인 ERP를 시행한 후 secretin (0.25 CU/kg body wt.)과 CCK (40 ng/kg body wt.)를 정맥 투여하고 5분 간격으로 30분 동안 수집하였으며, 췌액에서 분비량, 아밀라제, 그리고 중탄산염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mean  $\pm$  SD, \* $p < 0.05$  vs normal

Classification	Volume (ml/30 min)	HCO <sub>3</sub> <sup>-</sup> (mEq/30 min)	Amylase (U/30 min)
Normal	61.4 $\pm$ 5.2	7.5 $\pm$ 0.6	4,832.9 $\pm$ 982.6
Camb. I	55.8 $\pm$ 5.3	6.1 $\pm$ 1.3	3,622.9 $\pm$ 920.1
Camb. II	36.1 $\pm$ 5.1*	3.6 $\pm$ 0.8*	2,792.4 $\pm$ 567.1*
Camb. III	15.6 $\pm$ 2.4*	1.3 $\pm$ 0.3*	1,337.3 $\pm$ 355.2*

결론: 만성 췌장염 환자에서 ERCP 검사상 심한 주 췌관의 형태학적 변화가 관찰시에는 췌장 외분비 기능도 저하되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 Bismuth II형과 III형 간문부암 환자에서 편측 혹은 양측 배액술에 따른 임상적 효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생명과학연구원 소화기연구센터  
오형태\*, 진영주, 송일한, 임창영, 김정원, 노임환

목적: 간문부암은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5년 생존률이 10% 정도로 예후가 불량한 질병인데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때는 담관 배액술이 보존적 치료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문부암으로 진단된 환자군에서 편측 배액술과 양측 배액술을 시행 후 배액 형태에 따른 임상 효과를 조사 하였다. 방법: 1994년 5월부터 1998년 7월 까지 본원에서 ERCP와 CT 소견 및 조직학적 검사 상 간문부암으로 진단 후 Bismuth 형에 따라 내적배액술을 시행하였던 49예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Bismuth I형은 내적 배액술을 한 개의 배액관으로, II형과 III형에서는 편측 혹은 양측으로 시행하였으며 양측 담관배액술 시행한 경우를 A형, 편측 담관배액술 시행한 경우를 B형으로 구분 하였다. 결과: 49예의 간문부암 환자들(63.5  $\pm$  10.0세, 남:여=28:21)은 Bismuth I형 13예(평균 생존일: 217.4일), type II형 16예(평균 생존일: 139.0일), type III형 20예(평균 생존일: 115.5일)로 II형과 III형간의 생존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I형과 III형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 원인질환은 Klatskin's tumor 32예, GB cancer 8예, hepatoma 6예, metastatic cancer 2예, malignant lymphoma 1예 었다. Bismuth형과 내적배액술 형태에 따라 Group A= Bismuth type I, group B= II A + III A, group C= II B + III B로 정의 하였다. Group A 13예(평균 생존일: 216.9일), group B 14예(평균 생존일: 211.2일), group C 22예(평균 생존일: 71.1일)이었으며, group A와 C( $p < 0.01$ )에서, group B와 C( $p < 0.01$ )에서 생존일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문부암을 원인질환에 따라 생존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생존일은 biliary origin group (Klatskin's tumor와 GB cancer) 166.5일, non-biliary origin group (hepatoma, metastatic cancer, malignant lymphoma) 81.7일이었으며 유의한 생존일( $p < 0.05$ )의 차이를 보였다. 합병증은 group A(Bismuth I형)에서 담도염 2예, 혈액담즙증 1예, group B(Bismuth II A + III A)에서 담도염 2예, stent migration 1예, bile peritonitis 1예 그리고 group C(Bismuth II B + III B)에서 담도염 10예, stent migration 2예로 group C에서 담도염 발생률이 현저히 높았다. 결론: Bismuth type II와 III의 간문부암에서 양측 담관배액술을 시행한 경우가 편측 담관배액술을 시행한 경우보다 더 높은 생존률을 보였고 합병증도 유의하게 적어 양측 담관배액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